

민주당 '전대 룰' 놓고 내부 충돌 '점입가경'

지도부 임기·지도체제 제안 전준위·혁신위 '엇박자' 모바일 투표 존치냐 폐지냐 주류-비주류 기싸움도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대립 전선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장,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결정할 지도부 임기와 지도체제 등을 놓고 정치혁신위원회(혁신위)가 강력 제동을 나섰다. 혁신위는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비대위-혁신위-전준위 간담회에서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되 새로운 지도부의 임기는 한명숙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까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도체제와 관련, 전준위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 맞서 당 대표 권한을 한층더 강화한 단일 지도체제를 제안했다. 비주류의 주장이 어느 정도 관철된 전준위의 결정에 혁신위가 주류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반기를 든 셈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치혁신위가 "혁신위에서 전대룰을 포함한 혁신안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전준위가 일방적으로 룰을 발표한 것은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려웠다. 13일 정치혁신위 관계자는 "차기 지도부는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는다면 전대가 계파 전쟁 양상을 띠면서 결국 혁신 과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준위는 계파 간의 절충 등 현실론을 들어 혁신위를 설득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와 전준위는 14일 오전 연석 회의를 열어 전대룰에 대한 조율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전준위 결정에 반대하는 비주류 그룹의 중진의원 등 약 10명도

조만간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혁신위의 움직임에 대해 비주류 그룹에서는 "혁신위는 상설 기구인 반면 전준위는 공식 당내 기구"라며 "혁신위의 주장은 전준위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혁신위의 주장이 친노 및 주류그룹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주류 측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며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모 중진 의원은 "혁신위는 자신들의 할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당내 모든 사안을 관장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주장에 친노 및 주류 그룹의 의사가 담긴 것이

나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준위는 14일 혁신위와 함께 전당대회 경선 룰의 '뜨거운 감자'인 모바일투표 존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류와 비주류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당초 전준위는 13일 오후 전당대회 경선 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14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준위 관계자는 "14일 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질 전망이어서 회의 장소를 아예 비밀로 불었다"며 "이날 전준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뒤집어 진다면 민주당은 또 한 번 걸잡을 수 없는 내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홍원 총리 후보자 20~21일 인사청문회

민주 "국정운영 능력·아들 병역·재산증식 검증"

국회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0~21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또 22일 오전에는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 및 수입료, 병역의혹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을 신문한 뒤 오후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며 임명 동의안은 애초 예정대로 2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는 13일 오전 원유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민주당합당 민병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새로운 인사청문회 관행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차별로

검증 주제를 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 청문회는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 21일 청문회는 공식 시절 활동 평가와 도덕성을 각각 검증한다. 아울러 여야는 20일 청문회에서 본격적인 문답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추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했고, 정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할 때 원할 경우 가족이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합당은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정운영 능력을 비롯해 검사 재직 시절 등 과거 활동 내용, 재산 증식 의혹, 아들 병역 문제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당총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는 이날 북한의 핵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연합뉴스

유정복 내정자-강운태 시장 20년 인연 눈길

행정고시 선후배·'상사와 부하'로 공직생활·국회 의정활동 등 '동거동락'

박근혜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과 강운태 광주시장의 오랜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시장과 유 장관 내정자는 각각 행정고시 11회와 23회 출신으로 고시 선후배인데다 옛 내부부에서는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며 20년 이상 인연을 맺어왔다. 1992년 강 시장이 내부부에서 지역 경제국장을 지냈을 당시 유 장관 내정자는 과장으로 일했으며, 5년 후 강 시장이 내부부 장관이었을 때는 유

장관 내정자가 김포군수를 지내는 등 두 사람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인연을 시작했다. 유 장관 내정자가 이번 국회청문회를 통과해 안행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장관과 자치단체장으로서 두 사람의 관계가 16년 만에 뒤바뀌는 셈이다. 강 시장과 유 장관 내정자는 또 18대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며,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강 시장은 1995~1996년 농림수산부장관을, 그리고 유 장관 내정자는 2010~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지냈

다. 유 장관 내정자는 당시 광주김치 축제 현장을 방문해 남도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으며, 강 시장에 대해서는 평소 '선배님'으로 각 뜻이 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이 같은 인연 때문에 지방재정과 고위공무원 인사 분야에서 안전행정부와 광주시 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13일 유 장관 내정자에 대해 "차분하고 점잖은 사람"이라며 "장관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이동흡 현재소장 후보자 자진 사퇴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공직후보 사퇴의 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오늘 오후 6시30~40분께 전화를 걸어와 직접 작성한 '사퇴의 변'을 전달했다"면서 "일장과 관련해 다른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지난달 3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현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1일 만에 자진사퇴하게 됐다. /연합뉴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인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과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대현생명, 구.한미소평,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82-2 대인시장 한미소평 맞은편, 병무소병서

진료문의 062)227-7575
신/포/시간: 평 일: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운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접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게 제대로 못먹고, 실패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지식 학운 건장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역되 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망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대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투자 하실 분

▶물건 :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보장 : 등기근저당 설정
▶자금 : 5천만원 이상
▶기간 : 1년장도
▶수익 :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분야 : NPL과 특수물건
▶시간 :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수강료 : 개인, 1100만원 공동, 550만원 (임정비등 일체)
(주)오현경매 H.010-4667-93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층 38평, 사무실 전용
- 현, 보1000만원에 월60만원 임대중
- 현, 대출2900만원 있음
- 매매가, 9000만원
- 문의 : 010-3605-5000(주인직)

매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층 38평, 사무실 전용
- 현, 보1000만원에 월60만원 임대중
- 현, 대출2900만원 있음
- 매매가, 9000만원
- 문의 : 010-3605-5000(주인직)